

‘전두환 범종’ 처리 방식 논란

장성 상무대 무각사 보관
광주시·5월단체 반환 요청에
군중교구 전향적 검토
시, 녹여 없거나 전시 계획
불교계 ‘상징물 훼손 안돼’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 보관 중인 ‘전두환 범종’.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광주를 방문해 당시 육군 교육시설인 상무대 내 군 법당(현 무각사)에 기증한 이른바 ‘전두환 범종’(梵鐘, 높이 3m·무게 2t)의 처리 방식을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광주시는 오는 9월께 장성 상무대 내 법당에 보관돼 있는 전두환 범종을 반환받아 파종(破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종교적 상징물로 여기는 불교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12일 광주시 인권협력관실 등에 따르면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달 24일 육군본부(총남 계룡대) 군중실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군중특별교구 관계자들을 만나 ‘전두환 범종’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광주시는 다른 범종을 만들어 상무대 법당에 기증하고 ‘전두환 범종’을 기증받는 방안을 전달했다. 불교 군중교구측은 “(범종의) 광주시 반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중교구 담당자는 “범종이 국방부 소유이긴 해도, 관리주체(장성 상무대 무각사)가 조계종인 만큼 총무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범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이후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1981년 광주에 있던 상무대를 방문하면서 상무대 내 군법당인 법무사(현 무각사)에 기증한 것이다. 이 범종에는 ‘상무대 호국의 종’이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세로로

‘대통령 전두환 각하’가 새겨져 ‘전두환 범종’으로 불려왔다.

지난 2003년 존재가 알려진 이후 5월단체는 학살자의 이름이 새겨진 범종이라며 파종 등을 주장했고, 지난 2006년 결국 현 광무 상무지구 내 무각사에서 장성 상무대 내 무각사로 옮겨졌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장성 상무대 무각사에서는 2016년부터 해당 범종을 타종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5월 단체는 9월까지 2-3차례 군중교구측을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9월 중 반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환된 범종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녹여 없애는 파종, 5·18 관련 지역 내에 묻어 시민들이 밟고 다니게 하는 방안, 범종에 새겨진 ‘전두환’ 세글자를 지운 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단순히 ‘전두환 범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추가 예산을 들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할 필요가 있는

지, 또한 불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땅 속에 묻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불교계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범종은 제작에 참여한 말단 직원부터 총괄자까지 이름이 새겨져 있는 만큼 해당 범종은 ‘전두환 범종’이 아닌 ‘무각사 범종’으로 불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부불교연합회 관계자는 “‘범종’은 부처님의 목소리를 상징하며 범종에 새겨진 용 문양은 부처님을 뜻한다”며 “광주시로 범종이 반환됐을 때 파종이나 전시를 하는 방안은 범종 자체를 멸시하는 행위로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주의 역사적 상처는 공감하며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차라리 파종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파종을 하게되면 철자에 따라 광주시가 아닌 불교에서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5·18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진상규명 국면을 맞아 조계종에서도 범종 반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범종이 반환되면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5월단체, 불교계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기념식 파행·보훈단체 불법행위 조사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 오늘 공식 출범

국가보훈처는 12일 “적폐의 재발을 법·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가 13일 공식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발방지위에는 김영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항녕 전주대 교수, 성준일 변호사, 소현숙 한양대 연구교수, 김은경 보훈처 정책보

좌관 등 보훈혁신위 위원 6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정치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관리책임 등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보훈 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지난 2009년부터 5·18 기념식

과 관련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빼거나 변경해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2008년까지 12년간 기념식에서 제창됐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과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알이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여름밤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

광주시 동구 문화재 야행 ‘달빛걸음’이 지난 11일 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전당 주차장 앞 대나무숲에 설치된 한지공예 조형물에 소원지를 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다중시설 10곳 중 7곳 화재 위험 노출

전남소방본부 위법 3815건 적발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7곳 이상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건축사와 근린생활·문화·종교·판매·의료 시설 등 건물 1246개 등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74.8%에 달하는 932개 동에서 381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개·폐기 용량 초과, 전기시설 관리 부적정 등 유지·관리 과정의 허점이 무더기 지적됐다. 전남소방본부는 해당 시·군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 부서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전남소방본부는 또 이번 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있는 점을 고려해 20일(필요하면 10일 추가)간 자진개선을 하도록 했다. 개선 대상 건물 897개 동 가운데 150개 동을 확인한 결과, 90% 이상이 자진해서 개선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본부는 미개선 대상에게는 기관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호경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35개 조사반과 시민조사참여단이 각각 하루 한 곳 이상 건물에 대해 이용자의 시각에서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건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화재 예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총 1만9089개 등에 대해 2019년 12월까지 진행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치매 환자 방치해 낙상... 요양보호사 등 ‘벌금형’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90대 치매 환자를 보호장치 없이 침대 위에 방치해 낙상하게 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서모(여·45)씨와 박모(여·58)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낙상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기록을 조작(의료법 위반 혐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71)씨와 간호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해 사실을 알고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간호조무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였던 서씨와 박씨는 2016년 6월 26일 오전 9시 5분께 보성의 한 병원 병실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A(여·97)

씨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지대를 교체한 뒤 낙상방지 조치없이 30여분동안 방치했으며, A씨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쇄골 골절 등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간호조무사 2명은 A씨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도 의사, 간호사, 고대 근무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를 뒤늦게 파악한 의사와 간호사는 피해자 가족이 항의할 것을 우려해 염통약과 진통제 등을 사전에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상해가 더욱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점,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 잘못을 은폐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SNS로 여성 유혹해 사기 행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들을 유혹한 뒤 휴대전화 개통과 은행 대출 등을 유도에 14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서행.

○12일 전북 고창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SNS로 만난 B(여·21)와 C(여·20)씨에게 교제를 약속한 뒤 “금융사에 제직 중인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휴대전화 개통과 대출 등을 받도록 하고, 이를 가로챈 A(22)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B씨를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 4대(540만원 상당)를 넘겨받았으며, C씨에게도 접근해 개통한 휴대전화 2대(380만원 상당)와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서 추가로 휴대전화 6대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 가능성도 수사. /고창=박형진 기자 phj@k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했거나 임대유지권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한 보조금 분
 -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장에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부지 섭외 유망한 분
 - 태양광 부지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개발사업 유망한 분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 A-E, 태양광 발전사업 EPC, O&M사업
문의처: 02-3440-7642, jk@daesco.kr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 부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근무지 | |
|-------------|------------|------|-------------------------|--------|
| 다 스 코 | 전략기획 | 전략기획 | · 사업대상 분석 가능, 경력 10년 이상 | 화 순 |
| | 신사업개발 | R&D | · 태양광발전 경력자 | |
| 세 라 코 | 수집장비 | 설계영업 | · 설계영업 경력자 | 나 주 |
| | 사업지원(영업지원) | R&D | · 설계영업 경력자 | |

* 접수처: 06330-202, nco@daesco.kr, 접수시간: ~ 18시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 조선대학교)
- 수강신청 :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광주바이블칼리지 신입생모집

찾으십시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누리십시오!
쾌적한 20,000평의 자연 경관 속에서...

새학기 기숙형 신설반 (선착순 30명 모집)

- 기숙형 신학연구원 (주초반)**: 주일 야간 ~ 화요일주간
- 대상 및 기간: 신학생, 2년(코스 수료 후 준목 고시 응시자격 부여, 이수학점에 따라 기간 조절 가능)
- 기숙형 평신도훈련원 (주일반)**: 금요일 야간 ~ 토요일 주간
- 대상 및 기간: 평신도, 3학기
- 교육 내용: 성경개론, 구약사, 예배학, 전도학, 선교학, 설교학, 찬송학, 청지기론, 교회론 등
- 특징: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지망할 경우 신학연구원 편입 가능.

기존 신설반 (12년간 유지)

- ▶ 월요일: 월요일 주간
- ▶ 야간반: 주일야간 + 월요일야간
- ▶ 토요일: 토요일 주간
- ▶ 화요일: 화요일주간
- ※ 한 교회사 3명 이상 동시 등록시 30% 감면

모집기간: 9월 개강전 수시모집

- ▶ 구비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 접수방법: 본교 행정실 및 홈페이지, 등록금과 장학 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람.

2학기 개강일

- ▶ 토요일: 9월 1일(토)
- ▶ 야간반: 9월 2일(주일)
- ▶ 신학생 M.T.: 8월 25일(토) 오전 11시
- ▶ 월요일: 9월 3일(월)
- ▶ 목회자반: 9월 4일(화)
- ▶ 개강예배: 9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광주바이블칼리지
http://gjbic.kr

광주국제기독교스쿨
http://mygcds.com

☎ 061-381-0000 / 1365
010-9960-0091 (행정실장)
010-3636-9200 (교학처장)

전남 담양군 무정면 종리동길 42-34(성도리 산72)